NO. 1

3학년 여름방학을 전국 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에서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보냈습니다. 아세트산 생산 설비를 설계하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4명이 한 팀이 되어 역할을 분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장려상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팀이 작성한 보고서와 저희 팀의 보고서를 비교했습니다. 두 팀은 공정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했는데, 저희 팀은 열역학방정식, 증류탑 등 세부적인 측면의 설계에 집중한 나머지 전체 공정을 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화학 공정을 전체 맥락에서 설계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팀장이었던 저는 큰 책임을 느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소설 『제3 인류』에서,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그 자리에 대해 잘 알게 될지라도 결국은 전체를 놓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와 부분을 함께 보기 위해 공정설계에 관련된 다양한 서적과 논문을 읽고 정리하면서 공정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길렀습니다. 이런 통찰력은 생산관리 엔지니어로 일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생산관리 엔지니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부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화학기술공사에서 제가 습득한 지식을 창의적으로 응용하고 여러 가지를 새롭게 익히면서 최고의 생산관리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